

사회적 자본이 제주지역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황경수^{*}

¹제주대학교 행정학과

Effect of Social Capital on Goendang culture (a traditional community culture on Jeju) and Local Development

Kyung-Soo Hwang^{1*}

¹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 수준이 제주도의 지역 공동체 문화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권당문화에 대한 영향력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긍정요소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직접설문조사로 제주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최종분석에는 594부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네트워크(평균 4.01점), 신뢰(평균 3.80점), 규범(평균 3.43점), 협력(평균 3.00점), 참여(평균 2.80점)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둘째, 사회적 자본은 대체로 도농지역, 행정구역, 월평균소득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중 네트워크와 참여가 높을수록 권당문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규범과 참여가 높을수록 권당문화는 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육성은 권당문화를 긍정적 공동체문화로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Goendang(relatives) culture, which is a traditional local community culture, and local development as a positive factor.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 survey targeting 600 Jeju residents was conducted and 594 returned questionnaires were interpreted for the final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18.0. As a result, firstly, the levels of social capital of the surveyed appear as follows: network (average score 4.01), trust (average score 3.80), norms (average score 3.43), cooperation (average score 3.00), and participation (average score 2.80). Secondly, there are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 among the surveyed groups based on urban-rural areas,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average monthly income. Finally, among the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as the relative importance of network and participation increases, the surveyed think that they need Goendang culture more. Also, it turns out that as the relative importance of norms and participation increases, Goendang culture can exert influence on local development as an important influence factor. Therefore,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nurturing social capital can allow people to utilize Goendang culture for local development as a positive community culture.

Key Words : Goendang(relatives), Local Community Culture, Local Development, Social Capital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의 데이터는 필자가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2014)'의 원자료(Raw data)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여 사용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Kyung-Soo Hwang(Jeju National Univ.)

Tel: +82-64-754-2971 email: kshwang@jejunu.ac.kr

Received November 20, 2014

Revised(1st January 5, 2014, 2nd January 9, 2015)

Accepted March 12, 2015

Published March 31, 2015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 수준이 제주도의 지역 공동체 문화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권당문화(제주지역 공동체 문화로서 친척 사이에 갖는 결속감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며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나 조직, 집단의 문화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에 대한 영향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긍정요소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에 있다.

관계(rel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은 구조와 행위를 매개하는 변수로 기능한다.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속성에 대한 연구는 관계의 어떠한 특성이 구조와 행위를 사회적으로 연결시켜주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론적 관점에서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되고 있다[1]. 특히 So[2]는 구성원간 신뢰, 참여, 연계망, 제도 및 규범, 그리고 이타주의 성향은 그 자체가 사회구조화를 통해 추구되는 가치로서 결국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자 지역사회 발전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 혹은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과 지역주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양면성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다. Putnam[3]은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인 경향을 가진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개방성과 외부지향적인 특성을 지닌 교량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면서, 일반적으로 전자는 특수한 상호 호혜성과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반면 후자는 외부적 자산과 정보공유 및 확산을 풍부히 해준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 등[1]은 결속형의 경우 과별주의적이고 자기생존 중심적이며 그 결과 반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교량형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선을 추구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 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분류는 한국의 지역주의 연구를 하는데 유용한 분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지역주의적 성격이 제주지역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권당은 제주도에서 사용되어졌던 용어이다. ‘권당’이라고도 하며 원래의 표현은 권당(眷黨)으로 제주도에서

방상, 일가방상 등과 같이 쓰는 말로써 친척을 의미하는 단어이다[4].

이 권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공동체문화로 보는 인식과 제주도만이 가지는 과별의식, 혹은 인정주의, 제주도식 연고주의 등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나 공직의 부패 등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선행연구와 공동체적 문화로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권당을 부정적 측면으로 보는 연구들이다. Lee 등[5]은 언론사와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공생관계에서 과생되는 기사 게재요청과 봐주기식 보도도 권당문화의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Han 등[6]은 Yang[7,4]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혈족과 인척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결속해왔던 제주의 권당문화가 제주사회를 지연성이 강한 지역동질성사회로 만들어왔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지역적 동질성은 행위일치 압력을 크게 하여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촉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측면의 선행연구들이다. 전통적으로 제주에서의 권당은 그다지 부정적인 문화이기 보다는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동기(motive)라고 해석하고 있다. 제주도속담사전에서도 보면 친척과 외척, 고종, 이종 등 멀고 가까운 친척을 두루 일컫는다고 하고 있으며, 이들은 집안에 혼례나 장례를 비록해서 관심사 있을 때는 모여들어 서로 돕고 걱정하며 정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다[8]고 표현하고 있다.

Kim[9]은 제주의 촌락단위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친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완전한 남’은 없다고 보고,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삼촌’으로 부르는 등 폭넓은 권당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이 권당문화는 문중중심이기 보다는 강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Han 등[6]의 연구에서 재이용하고 있는 Kim[10,7]의 연구에서는 권당문화가 마을 공동체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친척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사돈은 된다고 생각하여 모두가 먼 친척일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화가 권당문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권당의 마을단

위, 혹은 제주지역 공동체문화로써 사회적 자본의 일환으로써 신뢰와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권당문화의 긍정성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였고, 실제 개인주의적 문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동체적 문화의 재건은 지역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고양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제기이자 배경에는 권당문화의 공동체적 긍정성을 의미부여하고 확대해서 미래의 제주발전에 도구화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변수설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nswerer

		category	person(%)
gender		male	278(46.8)
		female	316(53.2)
		total	594(100.0)
age		20~29	95(16.0)
		30~39	121(20.4)
		40~49	144(24.2)
		50~59	113(19.0)
		60~	121(20.4)
		total	594(100.0)
Jeju hometown presence		No	156(26.4)
		Yes	434(73.6)
		total	590(100.0)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urban	414(71.6)
		rural	164(28.4)
		total	578(100.0)
area of administration		jeju-si areas	425(73.5)
		seogwipo-si areas	153(26.5)
		total	578(100.0)
education degree		than middle school	64(10.8)
		high school	220(37.2)
		university	293(49.6)
		graduate or higher	14(2.4)
		total	951(100.0)
average monthly income		~200(millions)	90(15.2)
		200~299	175(29.6)
		300~399	177(29.9)
		400~499	95(16.0)
		500~	55(9.3)
	total	592(100.0)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도내 20세 이상의 제주도민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을 반영하여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과 임의표본추출방법(random sampling)

을 이용하여 60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월20일부터 2일간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의 문제점을 보완·재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설문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지역별 버스정류장,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8일간) 직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실한 설문 6부를 제외한 594부(99.0%)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도구 및 변수설정

권당문화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 문화로서 Coleman[11]이 제시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나 연대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며, 거의 모든 사회는 가족, 학교,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 혹은 공식조직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Table 2] Questionnaire consist and Reliability

variables	questions	Cronbach's α
trust	trust on family	.788
	trust on patrilineage family	
	trust on matrilineal descent family	
	trust on riend	
norm	trust on neighbor	.913
	acceptance of social support during the tax obligation	
	child handicapped elderly	
network	family/relatives importance of network	.815
	neighborhood importance of network	
	friend importance of network	
participation	society group(hometown) participation level	.667
	local festival participation level	
	public hearings(local society) and seminars participation level	
cooperation	local problem solving influence recognition	.571
	residents of cooperation influence to resolve conflict	
	regional conflict resolution activity intention level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제주도민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하위 구성요소를 신뢰영역(5문항), 규범영역(3문항), 네트워크영역(3문항), 참여(3문항) 및 협력영역(3문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권당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지

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민의 인식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귀하는 제주지역의 권당문화적 네트워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귀하께서는 제주지역의 권당문화적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각 영역별 하위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추출방법과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KMO값 .90이상)한 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2.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요인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로서 권당문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식(1)과 같은 선형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dots + b_nx_n + e$$

···formula(1)

여기서, y는 권당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권당문화가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 정도이고, a는 절편, b_n은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기울기)를 나타낸다. 식(1)을 이용하여 제주도민의 사회적 자본이 권당문화에 대한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제주도민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권당문화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 1-1. 제주도민의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 네트워크는 중요하다.
- 1-2. 제주도민의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 네트워크는 중요하다.
- 1-3. 제주도민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 네트워크는 중요하다.
- 1-4. 제주도민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 네트워크는 중요하다.
- 1-5. 제주도민의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 네트워크는 중요하다.

연구가설 2. 제주도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인식한다.

- 2-1. 제주도민의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 2-2. 제주도민의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 2-3. 제주도민의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 2-4. 제주도민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 2-5. 제주도민의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권당문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3. 연구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수준

3.1.1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수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영역이 평균 4.01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신뢰영역 평균 3.80점, 규범영역 평균 3.43점, 협력영역 평균 3.00점, 참여영역 평균 2.80점으로 나타나 제주도민의 경우 권당수준의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성원으로서 반사회, 동문화 및 지역사회 행사에 대한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level of social capital

category	N	Range	M±SD
trust	592	1.40~5.00	3.80±.55
norm	590	1.00~5.00	3.43±.80
network	593	1.69~5.00	4.01±.63
participation	594	1.00~5.00	2.80±.72
cooperation	594	1.00~5.00	3.00±.65

3.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수준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신뢰를 제외한 규범, 네트워크, 참여, 협력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평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t=2.851)와 협력(t=2.33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향이 제주여

[Table 4] Differences in levels of Social Capital

variables		trust (M±SD)	norm (M±SD)	network (M±SD)	participation (M±SD)	cooperation (M±SD)
gender	male	3.79±.54	3.46±.82	4.03±.64	2.89±.74	3.07±.69
	female	3.82±.56	3.40±.79	4.00±.61	2.72±.68	2.94±.61
	t	-.551	.831	.645	2.851	2.330
	p	.582	.406	.519	.005**	.020*
Jeju hometown presence	yes	3.73±.56	3.40±.82	3.98±.62	2.79±.76	2.98±.70
	no	3.83±.55	3.42±.80	4.02±.63	2.80±.70	3.01±.63
	t	-1.962	-.383	-.820	-.234	-.442
	p	.060	.702	.413	.815	.659
urban and rural areas	urban	3.79±.54	3.34±.81	3.95±.63	2.76±.73	2.94±.64
	rural	3.82±.58	3.60±.72	4.14±.60	2.87±.69	3.13±.63
	t	-.557	-3.662	-3.306	-1.620	-3.247
	p	.578	.000***	.001**	.106	.001**
area of administration	jeju areas	3.78±.59	3.37±.86	4.03±.64	2.74±.76	2.95±.67
	seogwipo areas	3.85±.44	3.53±.58	3.93±.59	2.95±.54	3.14±.56
	t	-1.596	-2.435	1.651	-3.720	-3.406
	p	.111	.015*	.099	.000***	.001**
age	20~	3.72±.57	3.46±.76	4.06±.57	2.55±.73	3.00±.68
	30~39	3.80±.53	3.46±.77	3.98±.60	2.80±.63	3.04±.65
	40~49	3.75±.52	3.36±.85	3.94±.64	2.89±.69	3.03±.64
	50~59	3.82±.54	3.43±.80	4.05±.66	2.88±.72	3.00±.66
	60~	3.94±.59	3.45±.82	4.05±.64	2.82±.77	2.93±.63
	F	2.712	.330	.870	3.916	.616
	p	.029*	.858	.482	.004**	.652
education degree	than middle school	3.92±.59	3.47±.86	4.05±.55	2.73±.77	2.84±.82
	high school	3.78±.61	3.30±.81	4.01±.68	2.78±.79	2.95±.63
	university	3.79±.50	3.49±.78	4.00±.61	2.81±.65	3.03±.60
	graduate or higher	3.90±.48	3.64±.61	4.14±.47	3.12±.70	3.74±.60
	F	1.304	2.900	.282	1.180	8.467
	p	.272	.034*	.839	.316	.000***
average monthly income	~199	3.63±.69	3.14±.94	3.97±.71	2.63±.91	2.82±.76
	200~299	3.82±.52	3.42±.75	4.06±.61	2.73±.74	2.98±.67
	300~399	3.85±.56	3.40±.76	4.06±.59	2.86±.63	3.05±.59
	400~499	3.85±.49	3.61±.74	3.86±.65	2.89±.58	3.03±.55
	500~	3.80±.45	3.67±.80	4.01±.56	2.96±.71	3.14±.65
	F	2.826	5.507	2.053	3.191	2.818
p	.024*	.000***	.086	.013*	.025*	

*p<.05, **p<.01, ***p<.001

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제주가 고향이 아닌 경우가 제주가 고향인 응답자보다 사회적 자본의 4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평균이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시지역과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시지역에 비하여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고, 규범(t=-3.662), 네트워크(t=-3.306) 및 협력(t=-3.247)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다음은 산남(서귀포시)과 산북(제주시)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는 네트워크를 제외한 신뢰, 규범, 참여, 협력에서 제주시 지역보다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평균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규범(t=-2.435), 참여(t=-3.720) 및 협력(t=-3.406)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에서는 신뢰(F=2.712)와 참여(F=3.916)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뢰 및 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에 따른 집단간 차이에서는 규범(F=2.900)과 협력(F=8.467)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규범 및 협력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에 따른 집단간 차이에서는 네트워크를 제외한 신뢰(F=2.826), 규범(F=5.507), 참여(F=3.191), 협력(F=2.81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신뢰, 규범, 참여,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5] Correlation Matrix between measured Variables

	① trust	② norm	③ network	④ participation	⑤ cooperation	⑥ necessity of goendang culture	⑦ regional development impact of goendang culture
①	1						
②	.161**	1					
③	.349**	.191**	1				
④	.219**	.079	.151**	1			
⑤	.158**	.287**	.143**	.454**	1		
⑥	.147**	.171**	.177**	.247**	.210**	1	
⑦	.174**	.220**	.142**	.199**	.158**	.743**	1

*p<.05, **p<.01, ***p<.001

3.2 상관관계분석

종속변수인 ‘권당문화 필요성’과 ‘권당문화의 지역발전 영향력’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협력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7개의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권당문화 필요성’과 ‘권당문화의 지역발전 영향력’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독립변수간 상관계수가 모두 .5이하이기 때문에 변수 간 중복성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Table 5].

3.3 사회적 자본이 권당문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이 권당문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권당문화의 지역발전 영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델 1과 모델 2 모두 공차한계는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은 각각 모델 1=1.966, 모델 2=1.955로 기준값인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델 1과 2의

[Table 6] Effect of Social Capital on Goendang culture and local development

variables	Model 1 necessity of goendang culture					Model 2 regional development impact of goendang culture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029	.370	-	2.779	.006**	.871	.384	-	2.268	.024*
gender	-.050	.071	-.029	-.704	.482	-.016	.074	-.009	-.218	.827
Jeju hometown presence	.193	.079	.097	2.438	.015*	.287	.082	.138	3.502	.000***
urban and rural areas	.076	.081	.039	.940	.347	.040	.084	.020	.474	.636
area of administration	.185	.084	.093	2.208	.028*	.303	.087	.146	3.494	.001**
age	.096	.032	.149	3.017	.003**	.065	.033	.097	1.981	.048
education level	-.054	.063	-.044	-.849	.396	-.103	.066	-.081	-1.564	.118
average monthly income	.020	.033	.027	.608	.544	.044	.034	.056	1.288	.198
thrust	.002	.068	.002	.036	.972	.094	.071	.057	1.326	.185
norm	.087	.047	.079	1.872	.062	.170	.048	.148	3.508	.000***
network	.163	.060	.118	2.723	.007**	.113	.062	.078	1.814	.070
participation	.173	.056	.142	3.084	.002**	.146	.058	.115	2.499	.013*
cooperation	.115	.063	.085	1.824	.070	.018	.065	.013	.280	.780
R ²	.149					.161				
F	8.095***					8.849***				
Durbin-Watson	1.966					1.955				

*p<.05, **p<.01, ***p<.001

주) Dummy Variables: gender(male=0, female=1), Jeju hometown presence(No=0, Yes=1), urban and rural areas(urban=0, rural=1) area of administration(jeju-si areas=0, seogwipo-si areas=1)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각 모형의 설명력은 모델 1은 14.9%, 모델 2는 16.1%의 설명력을 보였다.

Table 6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모델 1과 2의 주요 변수를 식(1)에 각각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다.

Model 1) 권당문화의 필요성(y_1)

$$y_1 = 1.029 + (.002 \times \text{신뢰}) + (.087 \times \text{규범}) + (.163 \times \text{네트워크}^{**}) + (.173 \times \text{참여}^{**}) + (.115 \times \text{협력})$$

(F=8.095, p=.000)

Model 2) 권당문화의 지역발전 영향력(y_2)

$$y_2 = .871 + (.094 \times \text{신뢰}) + (.170 \times \text{규범}^{**}) + (.113 \times \text{네트워크}) + (.146 \times \text{참여}^*) + (.018 \times \text{협력})$$

(F=8.849, p=.000)

각 모형의 회귀식을 해석하기에 앞서 주요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모델 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네트워크($t=2.723$, $p=.007$)와 참여($t=3.084$, $p=.002$)로 종속변수인 ‘권당문화의 필요성(y_1)’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t=.036$, $p=.972$), 규범($t=1.872$, $p=.062$) 및 협력($t=1.824$, $p=.069$)는 유의하지 못하였다. 모델 2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규범($t=3.508$, $p=.000$)과 참여($t=2.488$, $p=.013$)가 종속변수인 ‘권당문화의 지역발전 영향력(y_2)’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뢰($t=1.326$, $p=.185$), 네트워크($t=1.814$, $p=.070$) 및 협력($t=.280$, $p=.780$)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참여의 경우 모델 1과 모델 2 모두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1-3, 1-4, 2-2, 2-4는 채택되었고, 유효한 변수를 중심으로 회귀식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 1에서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네트워크 영역이 1점 증가할 때 권당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63점이 증가하고, 참여 영역이 1점 증가할 때 권당문화의 필요성은 .146점이 향상된다. 모델 2에서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규범 영역이 1점 증가할 때 권당문화의 지역발전 영향력은 .170점 증가하고, 참여 영역이 1점 증가할 때 권당문화의 지역발전 영향력은 .146점 증가한다.

β값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모델 1에서는 참여($\beta=.142$)가 네

트워크($\beta=.118$)보다 권당문화의 필요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면, 모델 2에서는 네트워크($\beta=.148$)가 참여($\beta=.115$)보다 권당문화의 지역발전 영향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지역주의적 성격이 제주지역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와 지역사회발전의 요소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 수준은 네트워크가 평균 4.01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신뢰(평균 3.80점)와 규범(평균 3.43점) 수준도 높았다. 반면 협력(평균 3.00점)과 참여(평균 2.80점)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의 네트워크는 주민들의 호혜적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주민들의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경우 중요한 교량형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신뢰의 경우 연령과 월평균소득에서만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으며, 규범은 시지역보다 읍면동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학력과 월평균소득에 따라라도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네트워크의 경우 도농지역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시지역에 비해 읍면동의 네트워크 수준이 더 높았다. 참여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 수준이 높았고, 연령과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협력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의 협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협력과 월평균소득에 따라서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고향이 제주유무는 사회적 자본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이면서 시지역보다 읍면동이 그리고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수준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요소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읍면동, 서귀포

시의 경우 호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사회적 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과 시지역, 제주시의 경우 호혜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육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권당문화에 대한 중요성(모델 1)과 지역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권당문화에 대한 영향력(모델 2)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델 1에서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중 네트워크와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론적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델 2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 규범과 참여가 권당문화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당문화가 지역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관계에서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 규범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당문화는 정치적 집단으로의 편입 강요와 소속집단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여 폐쇄적 집단사회를 조장하거나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철도형 사회’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12] 권당문화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로서 제주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호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간 정보공유와 공동의 선의 추구를 통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육성과 함께 이를 통한 주민 참여의 다양한 기법을 제도적·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201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의 관리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 지역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권당문화가 긍정적 요소로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간 상호 호혜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민선 6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철학으로써 제주도를 “작은 권당문화에서 벗어나 제주 모두가 권당인 더 큰 제주로 만들기”[13]를 바라는 공동체 의식의 표출을 보면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활용범위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가 제주지역의 독특한 지역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이 다차원적이라서 그 본질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권당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후속연구로서 권당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논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W. Lee., J. H. Lee., & Y. B. Hahn., Different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Regionalism: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ism,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5(2), pp.149-171, 2009.
- [2] J. K. So., The Logic of Connecting Local Autonomy System with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Accumulating Social Capital,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18(2), pp.67-90, 2004.
- [3] R. D. Putnam., *Bowling Alone*, New York: Touchstone Book, 2000.
- [4] J. M. Suk., *Jeju Dialect Dictionary*, Jeju: Seogwipo Cultural Center, pp.59, 1947.
- [5] K. M. Lee., Y. C. Ko., & K. H. Ki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Appear on the <People> Sections in Jeju's Daily Newspaper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7(3), pp. 187-226, 2007.
- [6] S. J. Han., & M. K. Yeum., Goendang Culture and Local Elections, *Korean Regional Sociology*, 8(1), pp. 211-236, 2006.
- [7] C. Y. Yang.,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Cheju Province*,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0.
- [8] Jeju-Do., *Jeju-Do Proverb dictionary*, Jeju: JejuDo, pp.43, 1999.
- [9] H. S. Kim., *Jeju-do Family and Goendang Culture*, Jeju: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9.
- [10] C. M. Kim., Kinship as a Category: Goendang Culture of Jeju,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24, pp. 95-115, 1992
- [11] J. S. Coleman., *Foundation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12] W. H. Koh., Jeju see the 'Roman ruin' in gang politics,
<http://www.jejusori.net>, 2013. 12. 7.
- [13] H. R. Won., 37's Jeju Governor Inaugural Address,
<http://www.jejusori.net>, 2014.7.1.

황 경 수(Kyung-Soo Hwang)

[중신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 박사)
- 2004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협상론